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2016. 3.30(수) ~ 4.5(화)

한국영화사연구소 조준형

I.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북미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연례 콘퍼런스 참석을 통한 북미 지역의 한국학/영화학 동향 파악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석 및 한국영상자료원 사업 소개 발표
- 박물관 전시 기법 및 동향 조사

□ 출장 개요

- 기 간: 2016. 3.30(수) ~ 4.5(화)
- 출장지: 미국 시애틀
- 출장자: 조준형(한국영화사연구소)

□ 세부 일정

월일(요일)	방문 장소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3.30(수)	시애틀 미술관	-인천 출발(18:40) ~ 시애틀 도착(12:50) ○ 시애틀 미술관 방문	
3.31(목)	EMP 박물관 북미아시아학회(AAS) 참관	○ EMP박물관 방문 ○ 컨퍼런스 과정 중 Film Expo 다큐멘터리 관람 ○ AAS 등록 및 참관	스티브 정 (프린스턴 대 교수)
4.1(금)	AAS 한국학사서워크숍	○ 콘퍼런스 참관 ○ 한국학사서 워크숍 참석 및 발표	듀크대 사서 구미리, 국회도서관 사서 이유림 등 20여명
4.2(토)	AAS	○ 콘퍼런스 참관 ○ 한국학, 한국영화연구자들과 만찬	테오도르 휴즈(컬럼비아대 교수), Everlyn Shi(U.C.버클리) 등
4.3(일)	AAS	○ 콘퍼런스 참관 ○ 도서전시장 관람	
4.4(월)		-시애틀 출발(14:20)	
4.5(화)		-인천 도착(17:20)	

II. 주요 내용

□ 북미아시아학회(AAS) 연례 콘퍼런스 참석

- 북미아시아학회(이하 AAS)는 전 세계 아시아학 진흥을 위해 1941년에 설립되어 현재 8,000여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학회로, 매년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연구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2016년 AAS 콘퍼런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스테이트 컨벤션센터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닷새 간 개최되었음.
- 콘퍼런스는 총 300-400개의 주제로 구성, 각 주제 당 4~6인이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됨. 콘퍼런스의 주제 구성은 연구자 집단이 주제를 기획하여 AAS에 신청하는 방식과 개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학회 측에서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나뉨.
- 이번 연례 콘퍼런스는 영화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아시아 지역 연구 전반을 다룸으로써 한국학 및 영화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전체 주제 중 ‘한국’ 혹은 ‘영화’에 관한 주제를 선별하여 출장기간 동안 6개 주제를 참관하였음.
- 한국영화 및 역사 등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일제시기, 60-70년대, 80년대 이후 등 다양한 시기를 다루고 있었음. 참관 주제별 참석자 수는 10~20인 정도였음.
- 2017년도 AAS 연례 콘퍼런스는 201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예정임.

※ 2016년 AAS 연례 콘퍼런스 참관 주제 및 내용 요약

1. 한국에서 세대 감수성과 협상된 현실들
 - 발표: 올라 레도렌코(서울대), 이인영(UC 데이비스), Shimpei Cole Ota (일본 국립 민속박물관), 장정아(인천대)
 - 내용 요약: 이 패널은 386세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었음. 오타 큐레이터는 1990년대 한국에서 독서 클럽의 성립과 해체를 중심으로 당시 386세대의 독서문화와 젠더의 문제를 제기함. 이인영은 1960년대 이후 민중 예술로서의 농악과 사물놀이가 1970-8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진보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가를 고려대학교 풍물패를 중심으로 검토함. 올라

레도렌코는 광고인인 박웅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광고가 어떻게 휴머니즘이라는 틀로 386의 감수성을 체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특히 그의 정체성을 강남좌파로 규정하고 386의 혁명적 감수성이 낭만적 휴머니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봄. 마지막으로 장정아는 386세대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서 후배 세대들로부터 낙인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386세대가 민주화 이후 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음.

2. 장치를 프레임하기: 일본과 한국에서 냉전 망가/만화와 대중매체
 - 발표: 히카리 호리(콜럼비아 대학교), 김규현(UC 데이비스), 추국희(소피아 대학교)
 - 내용요약: 히카리 호리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만화 “내일의 조”를 통해 1970년대 초 일본의 미디어 환경과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분석하였음. 이 만화가 냉전 하 일본 남성의 재현이 탈정치적, 탈국가적이며 해체적 육체로 드러나고 있음을 밝힘. 김규현은 1970년대 초 고우영의 일지매 만화의 탄생 배경과 줄거리, 화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만화 속 남성 재현이 국수적이지만 이성애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표. 추국희는 일본 원작 만화 올드보이와 영화 <올드보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후자에 근친상간이라는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적인 계기들이 작동하고 있고 이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권력관계가 착종된 결과라 주장함.
3. 봄으로의 진전인가, 가을로의 후퇴인가? 한국 젠더 연구에서의 진전과 도전
 - 발표: 로렐 켄달(미국 자연사 박물관), 김정원(콜럼비아 대학교), 최해월(호주 국립대학교) 한주희(토론토 대학교), 김승경(인디애나 대학교)
 - 내용 요약: 이 패널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토론회로 진행되었음. 최근 페미니즘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토론회를 통해 제시함.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역사를 통해 분석함. 특히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한국 사회를 비판.
4.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 “편집자로서의 작가”의 역할
 - 발표: Hien Thi Nguyen(베트남 국립대), 박슬기(한림대학교), 이진형(동경대학교), 최현희(한국외대)
 - 내용요약: 이 패널은 일제강점기 주요 잡지의 편집자를 맡았던 문인들의

활동을 통해 문학과 매체와의 상관성을 살핌. 응구엔은 최남선에 대해 발표하며 최남선이 편집자로 참여했던 신대한 잡지의 문화적 의미와 세계일주라는 창가를 분석. 이를 통해 최남선이 가졌던 당시의 지리적 상상계와 조선의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박슬기는 한국근대시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태서문예신보의 두 편집장 장두철과 김억을 비교 분석하며 초기 한국 문학이 어떻게 번역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보여줌. 세 번째로 이진형은 창조지의 편집자였던 김동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김동인의 순수 문학이 가졌던 원천과 특징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최현희는 이상을 통해 30년대 근대시의 특징을 살펴봄.

5. 동아시아의 냉전 개입: 인종, 역사, 장르, 젠더의 문화적 코드 깨기

- 발표: 박현선(연세대), 이영재(성균관대), Everly Shih(UC 버클리), 정재원(컬럼비아대)
- 내용 요약: 이 패널은 한국영화와 전시회를 바탕으로 한 발표문들이었음. 이영재는 50-60년대 한국영화와 외화와의 협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협작의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남성화의 방식으로 재현되는가를 밝힘. 박현선은 이만희의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이만희의 영화세계와 당시 반공이데올로기를 검토하며, 이만희의 영화가 재현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영화화했는지를 설명함. 대만과 한국의 007 개작들에 대한 이블린 쉬의 연구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음. 이블린 쉬는 대만과 한국에서의 007 변형물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혔는데, 특히 조잡하지만 새로운 무기, 코미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성역할 전도가 특징이었음을 설명. 정재원은 1950년대 미국이 주도한 인간가족전의 한국전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적 냉전 구도가 어떻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함.

6. 탈민족적 탈사회주의적 한국문학과 영화 만들기: 1980-90년대 새로운 한국문화정치학을 향하여

- 발표: 천정환(성균관대학교) 이해령(성균관대학교) 지나킴(딕슨 칼리지) 전우형(건국대학교)
- 내용요약: 이 패널은 80년대에서 90년대 386세대의 문화정치적 지향과 담론상황의 변화를 검토함. 이해령은 1990년대 초중반 문학동네, 문화과학, 또하나의 문화 등의 잡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적 전환'의 논리와 담

론을 살핌. 천정환은 1980-90년대 노동자 일기와 문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에도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후 노동의 고립으로 전화되었다고 진단. 지나 킴은 <깊고 푸른밤>과 <All Under Moon> 등의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지역성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를 분석. 마지막으로 전우형은 1980-90년대 독립영화 주역들이 상업영화로 진출하면서 발생한 문화적 함의를 추적함.

□ AAS 도서 전시회 동향 조사

- AAS는 연례 학술대회 기간 중 도서 전시회(4.1~4)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북미의 주요 출판사 및 아시아 지역 출판사가 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음. AAS 도서 전시회는 북미 아시아학 연구 서적을 전시하는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참여 출판사의 아시아학 서적 전시 및 할인 판매, 기관 홍보,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장소로 활용됨.
- 올해 AAS 도서 전시회에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Harvard Univ. Press), 루트리지(Routledge) 등 영미권 주요 출판사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출판사 등이 참여하였음. 한국 출판사 혹은 기관으로는 학술 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문학번역원, 집문당,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참여함.
- 전시회 참여 출판사들은 각 출판사의 출판물(샘플) 및 기관 소개 팸플릿 등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전자도서의 경우에는 전자도서 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니터 등을 구비하였음. 그 외 부스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을 증정하기도 함.
- 전시회는 도서 샘플 전시를 통해 출판물 및 신간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미주 지역 출판사의 경우 현장에서 도서 할인 판매(20~30% 할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나, 미주 이외의 출판사는 샘플 도서만을 전시하고 특정 도서를 요청하는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향후 요청 도서를 배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일본/중국 등의 출판사의 전시 부스가 운집해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측 참여 출판사의 부스는 분산되어 있었음. 이는 전시회 관람자가 지역별 출판물, 특히 한국 지역 출판물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북미 대학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석, 발표 및 만찬(4.1)

- AAS 연례 학술대회 일정과 맞물려 매년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이하 CEAL)의 연례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북미 한국학 사서들의 모임 역시 진행됨. 4월 1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주관하는 한국학 사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이 워크숍 시간 중 16시 5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학번역원, 국회도서관 3개 기관이 사업 소개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함.
- 출장자는 이 자리에서 “국제 영상 네트워크 허브를 위한 고민과 지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내용은 영상자료원 간략 소개, 해외 한국학 사서들에게 유용한 영상자료원 사업 소개, 향후 방향, 협조 요청 등으로 구성됨(상세 내용은 붙임의 파워포인트 참고).
- 이번 워크숍에는 하바드대학교, 듀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하와이대학교, U.C. 버클리, 시카고대학교, USC, 미시간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밴쿠버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등 북미 주요 한국학 관련 대학 사서들이 참석하였음.
- 워크숍을 마친 후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하여 해외 한국학 사서들, 규장각 연구원들, 국회도서관 및 한국문학번역원 사서들과 인사하고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짐.
- 이하는 한국학 사서들과의 논의 및 요청 사항임.
 -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서들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다 이번 출장자의 발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서들도 있었음. 이들 사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서비스가 한국학의 증진과 수업 교재로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의를 표함.
 - 이에 출장자는 KMDb의 VOD 서비스의 경우 유튜브와 달리 영어자막을 지원하지 않으나 훨씬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많은 사서들이 이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현재 서비스가 1 도서관내 1개 PC만 허용되고 있어 자료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전함. KMDb를 통한 VOD 열람은 대체로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수업 자료 활용에의 불편함을 호소. 또한 최근 도서관의 정책이 변하여 학생들이 교내 어디서든(심지어 교외에서라도) 서비스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에 추후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대학 내 모든 IP에 허용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테드 코넬트 자료를 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희숙 사서에게 출장자가 작년 자료원이 발간한 테드 코넬트 자료집을 전달하자, 책의 디자인과

구성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사의를 표하였음. 나아가 이 자료집이 한국과 미국 대학 도서관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학이 개설된 모든 도서관 사서들에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하였음. (이후 출장자 귀국 후 메일을 통해 도서 전달 대학의 주소를 전달받았음. 신희숙 사서에게 25권을 전달하면 신희숙 사서가 북미 내 사서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현재 발송 준비 중에 있음).

- 수집부로부터 올해 현지 조사를 진행할 하와이 지역 현지 조사원을 소개받기 위해 하와이 대학 사서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와이 대학의 사서와 접촉하여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받아 귀국 후 수집부에 전달하였음. 현재 논의 진행 중임.
- USC의 사서로부터 자교에도 한국관련 영상이 있으며 자료원의 부담으로 디지털화 및 자료원 복사 기증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음. 이에 대해 수집부에 전달함.
- 이번 워크숍을 주재한 한국학 사서 모임의 회장인 듀크 대학교 구미리 사서와 차후 한국학 사서 모임이 한국에서 있을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하루를 체류하며 교육 및 상영 등을 진행하는 계획을 논의함.
- 밴쿠버 대학교의 사서로부터 영상 뿐 아니라 포스터나 스틸사진을 웹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 이에 대해 온라인 사료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17년이면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 밝힘.
- AAS의 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서 중심의 전시장에서 DVD를 포함한 영상자료를 소개할 경우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의견들이었음.

□ Film Expo 참석 및 다큐멘터리 관람

- AAS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간 중 Film Expo가 개최된다는 것임. 해당 상영회는 아시아 교육 미디어 서비스(Asian Educational Media Service: AEMS)에서 주관함. AEMS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동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의 조직으로 1998년 설립되었음.
- 상영회는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종일 진행되어 중편 및 장편 다큐멘터리 총 22편이 상영되었음.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출장자는 이 기간 상영된 영화들 중 두 편의 다큐멘타리를 관람하였음. 하나는 1968년 이치가와 곤 감독이 연출한 <교토: 일본의 심장>이라는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프란시스 네그론 문테이너의 <광 전투>라는 영화임. 전자의 경우 일본의

정신을 교토의 불교문화를 통해 살펴보는 실험적인 중편 다큐멘터리로 볼로냐 아카이브에서 복원했다고 함, <깜 전투>는 2차세계대전 말 광에서 미군 생존자들의 행보를 중심으로 일본군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였음. 해당 영화의 상영 전에는 주최측의 간단한 영화 해설이 있었고, 상영 후에는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와의 화상 인터뷰가 진행됨.

□ 박물관 견학

○ Seattle Art Museum

- 시애틀 아트뮤지엄(SAM)은 1933년 설립되었고 25000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시애틀 최고의 공식 예술 박물관임. 1991년 현재 위치(유니버시티 스트리트 퍼스트 애비뉴)로 이관하였으며 건물 규모는 14,000제곱미터. 16층 건물 중 4층을 전시장으로 쓰고 있음.
- SAM의 컬렉션은 동서고금의 예술품과 박물관들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전시 공간 역시 고대 지중해, 고대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세 이탈리아 등 시기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대 이후의 미술품은 부족한 느낌이었음.
- 상설전 중 도자기 방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 방은 대략 20-30평의 전시공간을 화려한 조명 하의 도자기들로 채우고 있었음. 거울 효과를 이용한 화려한 전시는 요즘 유행하는 기법으로 보이는데 도자기와 매우 잘 어울렸음. 특히 뼈 곡이 전시물이 들어찬 공간에 명제표를 놓는 것이 아니라, 도록을 별도로 만들어 관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음.
- 기획전으로는 “Kehinde Wiley: A New Republic”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힙합을 비롯한 미국 대중문화의 영웅들(특히 흑인)을 고전주의와 바로코, 키치가 결합된 독특한 느낌의 회화, 조각, 스테인드글라스로 전시되고 있었음.
- 아트숍은 넓으나 기념품의 디자인이나 구색이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음.

○ EMP Museum

- EMP뮤지엄(공식 명칭은 Experience Music Project and Science Fiction Museum and Hall of Fame: EMP/SFM)은 동시대 대중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폴 앨런에 의해 2000년에 개관하였음.
- 건물규모는 13000제곱미터(약 4000평)로 Frank O. Gehry가 설계한 건물임.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3개의 갤러리, 1층은 인포메이션 데스크,

크, 레스토랑, 극장 등으로 구성, 2층은 7개의 갤러리로 구성, 3층은 대형 공연장, 체험시설, 1개의 대형 갤러리로 구성됨.

- 박물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전시는 영화와 대중음악이 중심임. 특히 지하1층의 호러영화와 SF영화를 모아놓은관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전시의 내용이 방대하다기보다는 중요한 SF와 호러 영화들에 나오는 장비, 무기, 소품 등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이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를 통해 명제표를 매우 자세히 제시하는 동시에 폭넓은 영상자료와 체험장비를 구축해놓고 있었음. 예컨대 SF영화 속 무기를 전시한 경우 1950년대부터 사용된 무기의 제원과 해당 무기가 사용되는 장면을 스틸사진 혹은 영상을 통해 구현.
- 또한 “Nirvana: Taking Punk to the Masses”라는 전시 역시 인상적이었음. 시애틀 그런지 락의 대표적 그룹인 너바나를 기념하면서 너바나를 중심으로한 1980-90년대 락문화의 역사와 흐름을 조망함. 악기와 소품, 문서 자료, 이미지 등 풍부한 소장품과 함께 기록영상과 음향자료가 인터랙티브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고품질로 구현됨. 특히 음악 감상용 체험기기들의 음질이 매우 뛰어나 놀랐음. 이를 통해 박물관 전시에서 시청각물의 고품질 서비스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

III. 시사점

□ 컨퍼런스 참관에 따른 시사점

- 한국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의 경향이 각국별 범위에서 벗어나 트랜스내셔널한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영화, 대중음악, 게임 등 그간 진지한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한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연구와 발표가 상당수 존재).
- 유사한 맥락에서 고대사나 중세사 분야보다 근현대사, 심지어 80-90년대 역사까지도 연구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패널들이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냉전에 관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나는 신냉전 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패널은 중국 관련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한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구성됨.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학 연구자의 전언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의 연구 비중은 과거 중5, 일4, 한1의 비중이었으나 최근 중6, 일3, 한1의 비중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함.
- 이러한 분포는 도서전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아시아 출판물을 아우르는 대학 출판부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한 개별 국가 부스의 경우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 한국의 순이었으며 여타 지역 국가의 부스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아시아연구는 트랜스내셔널, 근현대, 대중문화, 냉전이라는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바, 이는 향후 한국 영상자료원의 국제사업 방향, 연구방향, 우수영상물을 포함한 DVD 및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2017년 내지 2018년부터는 영상자료원이 도서 전시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DVD, 도서, 유튜브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반응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 한국문화번역원 등 문화부 산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석에 따른 시사점

-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사서들과 대화한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는 향후 국제사업의 진행에 있어 매우 좋은 신호라 생각함.

- 지금까지 우리 자료원의 국제사업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있었던 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관계를 벗어나 개별 대학들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협업적 관계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박물관 견학에 따른 시사점

- 자료를 비교적 단순하게 전시한 Seattle Art Museum과 달리 EMP박물관은 소품 하나에까지 설명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영상자료까지 충분히 제시되고 있었음. 또한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체험시설(Sound Lab)의 경우 부스 별로 잘 짜여진 장비와 시설, 프로그램이 채워져 있었음.
- 이는 대중문화에 대한 전시일수록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전문성만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아동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향후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큐레이터들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첨단 전시 기술의 구현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전문성 함양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첨단 프로그램과 장비가 도입될 경우 전시 단가의 상승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붙임 1. 출장 기간 중 이미지 파워포인트 파일 1부.
2. 한국학 사서에서 발표한 파워포인트 파일 1부. 끝.